

# KOCHAM

##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  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4년 7월 8일(화)

### 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케이스, 미 주택시장 집값 상승 보장 어려울 것으로 예측
- 2) 미국내 마약 관련 자금 규제, 멕시코 이민자 송금수수료 폭탄

### 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, 5월 중 경기선행지수 발표
- 2) 유럽 은행들, 자산 매각 사상 최대인 1,000억 유로 규모 예상
- 3) 일본, 경상수지 4개월 연속 흑자 기록

### 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미 투자자들, 삼성전자 주주이익 늘리도록 압력
- 2) 폭스바겐, 중국 신규 공장 증설에 27억2,000만 달러 투자

## 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### 1) 케이스, 미 주택시장 집값 상승 보장 어려울 것으로 예측

- 지난 7일 부동산 전문가 케이스는 미국의 주택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
  - 케이스는 쉐러 예일대 교수와 함께 미국 20개 주요 도시 기존주택 가격을 토대로 한 S&P/케이스-쉐러 주택가격 지수를 공동 개발한 인물
  - 그는 이러한 결과의 원인에 대해 주택보유에 대한 시장조사에서 부정적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, 사람들은 주택가격이 결코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
- 케이스는 특히 주목할 만한 지표로 신규 주택 착공 건수를 언급, 지난 50년 동안 이 지표는 월 100만건에서 200만건 사이였으며 꾸준히 규칙적이었다고 밝힘
  - 그러나 지난 2009년 이 지표는 50만건 이하로 하락한 뒤 느리게 반등해왔고, 지난 4월 중 100만건을 초과 했지만 이것을 ‘터닝 포인트’ 로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

### 2) 미국내 마약 관련 자금 규제, 멕시코 이민자 송금수수료 폭탄

- 지난 7일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국외 송금 업무를 축소하고 있다고 보도
  - 이에 따라 미국내 이민자들의 고국 송금 수수료 부담만 늘어나는 역효과가 예상됨
- JP모건체이스와뱅크오브아메리카는 저가의 수수료를 받고 멕시코 이민자들의 돈을 멕시코 내 가족에게 보내주는 서비스를 중단함

- 스페인계 은행인 BBVA도 멕시코와 남미 국가들에 대한 외화송금 부문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
- 씨티은행 그룹의 바나멕스 USA도 텍사스, 캘리포니아, 애리조나에 있는 지점 상당수를 폐쇄하고 멕시코로의 송금을 대부분 중단시킨 바 있음
- o 전문가들은 은행으로서는 송금에 부담이 증가한 만큼, 결국 송금 수수료를 상향조정 시킬 것이라고 지적
- o 한편, 지난 2012년 미국에서 국외로 송금된 511억달러 중 50% 가량이 멕시코로 송금된 것으로 알려짐

## 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### 1)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, 5월 중 경기선행지수 발표

- o 지난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는 34개 회원국의 5월 중 경기선행지수가 100.60을 기록했다고 발표
- 34개 회원국 경기선행지수는 올해 1월과 2월에 100.56을 기록한 후 3월 100.57, 4월 100.58을 기록했고 5월에도 상승세를 지속
- o 34개 회원국 중 스페인이 전월비 0.17p 상승한 103.03을 기록해 지수가 가장 높았으며, 그리스가 그 이후로 102.89를 기록
- 미국의 5월 중 경기선행지수는 0.08p 상승한 100.60, 일본 경기선행지수는 0.26p 하락한 100.40을 기록

- o 주요 7개국 경기선행지수는 0.01p 상승한 100.64, 유로존 경기선행지수는 0.02p 상승한 101.12를 기록
- o 비회원 6개국(브릭스 5개국과 인도네시아)을 포함한 40개국 경기선행지수는 100.02를 기록, 전월 대비 0.04p 상승
  - 비회원 6개국 경기선행지수는 모두 100을 하회
  - 중국(99.25) 인도(98.22) 러시아(99.29) 등이 전월 대비 소폭 오른 반면 브라질(98.70) 인도네시아(98.07) 남아프리카 공화국(99.57)은 소폭 하락

## 2) 유럽 은행들, 자산 매각 사상 최대인 1,000억 유로 규모 예상

- o 지난 7일 FT는 유럽의 은행들이 올해 규제 강화에 따른 자산 재조정에서, 사상 최대 수준인 1,000억 유로 규모의 불필요한 대출 자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보도
- o 회계컨설팅 업체 PwC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유럽 은행들은 830억유로의 자산을 이미 매각했거나 매각 중인 것으로 알려짐
  -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매각된 자산 규모 640억 유로를 이미 상회하는 결과
- o 전문가들은 유럽 은행들의 자산 매각 규모가 전체 비핵심 자산 2조4,000억 유로에 비하면 일부이나, 점차 매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
  - 또한 유로존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, ECB의 자산건전성 평가를 앞두고 은행들이 대차대조표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압박등을 매각의 요인으로 지적
- o 한편, PwC에 따르면 은행들의 자산 매각 상당 부분이 부실 채권이지만 건전 자산의 매각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
### 3) 일본, 경상수지 4개월 연속 흑자 기록

- 지난 8일 일본 재무성은 5월 중 경상수지 흑자액이 5,228억엔을 기록했다고 발표
  - 이는 블룸버그 예상치인 4,175억 엔 흑자와 전달의 1,874억엔 흑자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로, 일본 경상수지는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, 계절 조정된 통계로는 2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냄
- 전문가들은 무역수지 적자 감소를 경상수지 개선 요인으로 지적
  - 5월 중 무역수지는 6,759억엔 적자를 기록, 전달의 7,804억엔보다 감소했으며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8,225억엔을 하회한 수치임
- 한편, 일본 증시는 경상수지 개선 소식에도 엔화 강세로 인해 0.8% 하락함

## 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### 1) 미 투자자들, 삼성전자 주주이익 늘리도록 압력

- 지난 7일 WSJ은 미국의 유력 투자자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보유중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 이익을 늘리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
  - 미국 헤지펀드인 페리카피털과 뮤추얼펀드 운용사인 약트먼 자산운용, 아티젠파트너 등이 최근 삼성전자 임원진과의 비공개 모임에서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(바이백)을 재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
- 전문가들은 삼성이 60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, 주주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됐다고 지적

- 삼성은 2007년 순이익의 40%를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줬지만 지난해 주주들에게 돌아간 이익은 7.2%에 불과해 경쟁사인 인텔, 애플, 대만반도체(TSM) 등을 하회하는 수준
- o 한편,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월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올해 내부 유보현금 활용과 관련한 전략을 재검토한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

## 2) 폭스바겐, 중국 신규 공장 증설에 27억2,000만 달러 투자

- o 지난 7일 WSJ은 폭스바겐은 이날 중국 칭다오와 톈진에 27억2,000만 달러를 들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
- 폭스바겐은 2018년까지 총 182억유로를 투자해 중국내 연간 생산량을 현재 330만대에서 400만대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힘
- o 올 1/4분기 폭스바겐이 출하한 차량 가운데 3분의 1이 중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짐
- 이로 인해 올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폭스바겐의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18% 가량 증가함
- o 또한, 폭스바겐은 이날 중국제일자동차그룹FAW와 공장 관련 계약을 맺는 한편 상하이 자동차 그룹과 자동차 생산 조인트 벤처를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